

## 조선지도 500년: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

장상훈 | 117~120호 조선1~3실 | 18:00~18:30

지도는 자기 자신을 직접 그린 자화상과도 같은 것이다. 지도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뿌리내려 살아 온 고장의 산줄기와 물줄기, 그들이 일구어 만든 고을과 마을이 그들 나름의 시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지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한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선인들이 만든 지도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다. 옛 지도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인 것이다.

옛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땅에 대한 기록을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의 두 형태로 남겼다. 지지가 지역에 대한 문자기록인 데 비하여 지도는 산과 강의 모습 그리고 땅 위에 만든 도시나 도로 등의 인문적인 문화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그린 일종의 그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에 보이는 지도 관련 기록들은 이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삼국시대 이래의 지도 제작 성과를 계승한 조선은 왕조의 개창 직후인 1402년(태종2)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우수한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다. 당시의 세계지도 중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 수준과 문화적 역량을 잘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지도 제작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국가와 민간에서 여러 종류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곧 <전국지도>와 <도별지도[道別圖]>를 비롯하여, 서울 지도와 고을 지도, 세계지도와 외국지도, 국방지도와 지도책 등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렇게 축적된 성과 위에서 1861년(철종12) 제작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17세기 이후 발전해 온 대축척 전국지도의 결정판으로 우리나라 지도 제작 전통의 금자탑이라 평가되고 있다.



그림1.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년



제59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7월 4일)

## 특별전 “칸의 제국 몽골(6)”

오세연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몽골 초원의 유목 국가들은 일찍이 유라시아를 연결하며 세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번 전시는 광활한 초원을 내달리며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 문화의 교류를 이끌어 낸 유목 제국들의 역사와 문화를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 몽골국립박물관, 북드 한 궁전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제1부 제국의 여명: 선사시대 몽골

몽골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80만 년 전이었다. 몽골의 석기시대 는 대형 석기를 주로 사용하던 구석기시대, 잘 가공된 세석기를 만들었던 중석기 시대, 정형화된 석기를 사용하면서 토기를 제작했던 신석기시대로 구분된다. 청동기는 기원전 3천년 기 후반에 처음 나타났으며, 기원전 1천년 기 초반부터 널리 쓰였다. 이 시기에 사용하던 청동기에는 여러 동물 형상이 표현되어 있다.

### 제2부 고대 유목 제국: 흉노와 돌궐

몽골 지역에는 기원전 3세기 무렵에 흉노匈奴가 최초로 국가를 세웠으며, 이어 선비鮮卑와 유연柔然이 활동하였다. 6세기 중반부터 9세기 말까지는 돌궐突厥, 위구르, 키르기즈가 몽골 지역을 지배했고, 10세기 초에 거란이 등장하였다. 여러 유목 국가 가운데 흉노제국과 돌궐제국의 유적이 최근에 활발하게 조사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흉노는 중국 진秦, 한漢과 맞설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동서 문명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돌궐은 아시아 내륙의 초원과 오아시스 대부분을 하나로 통합한 거대 유목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 제3부 몽골 제국과 칭기스 칸의 후예들

몽골은 13~14세기 태평양 연안에서 동유럽, 시베리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거대 제국을 건설하였다. 몽골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많은 국가와 종족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과 타반 톨고이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16세기부터 티베트 불교가 널리 퍼지며 불교 사원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등 몽골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 - 헤티 산맥의 사리닥 사원 -

사리닥 사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복드 잡잔담바 1세의 전기』라는 몽골 사료에 남아 있는데, 대략의 내용은 1654년 현자 복드 잡잔담바가 할하 몽골 헤티 산맥의 남사면에 황교黃敎를 융성시키기 위해 ‘리보게자이-간단샤드도블링’이라는 대사원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1654년부터 시작된 사리닥 사원의 건립은 1680년에 대부분의 건물을 완성했고, 1686년 여름에 사원의 건물과 불상 등을 완전히 조성해서 낙성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32년에 걸쳐 세운 이 사원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고 3년 뒤인 1688년 할하와 오이라트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갈단보식트가 이끄는 군대가 헤티산맥과 케를렌 강까지 쳐들어왔을 때 파괴되었다 .

이 유적의 본격적 발굴 조사는 2013~2017년에 이루어졌다. 2013년 발굴 결과에 따르면 사원의 규모는 가로 380m, 세로 470m 크기이며, 면적은 17.86헥타르다. 건물의 평면도는 고고학자 오르트나산과 앙흐톨 등이 작성했으며, 유적은 건물, 돌담, 탑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두 12개의 건물, 3개의 탑, 2개의 돌담이 확인되었다



그림1 금당지 발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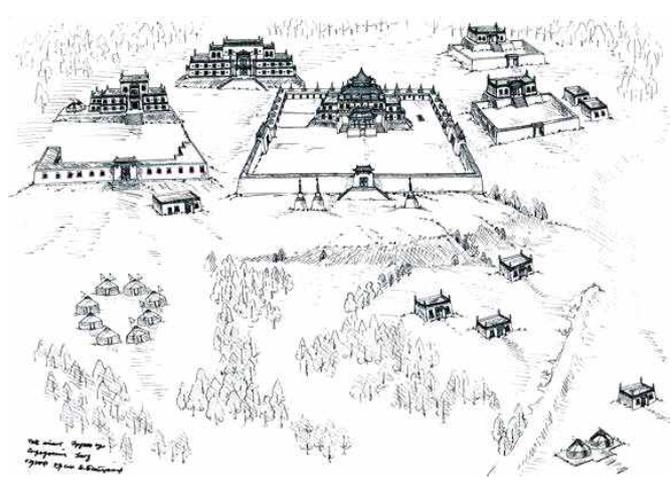


그림2 복원도

# 도자기의 색

-발색제 편-

이해순 | 308호 중국실 | 19:00~19:30

도자기는 형태와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한다. 비색청자와 설백의 백자가 주는 감흥은 색이 없이 형태만 있는 조형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도자기의 색은 태토와 유약에 혼합된 발색산화물이 고온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결과이므로 발색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자기에 발색산화물이 존재하는 모습은 대략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발색제가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흙속에 천연 광물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로 태토는 발색제를 마치 불순물처럼 미량 포함하고 있으며 도자기의 색이 온화하고 자연스럽다. 둘째, 광물을 정제하여 순수한 발색산화물만 존재하도록 가공한 경우로 사용 시 발색능력은 좋으나 소성분위기나 유약성분에 따른 색상변화가 심하여 불편하다. 셋째, 특정한 사용온도 및 소성조건만 충족하면 어디서나 안정하게 발색하도록 가공한 안료가 있다.

도자기용 발색제는 태토, 유약원료 및 화장토에 혼합하여 사용한다. 발색제의 사용형태에는 화장토와 안료가 혼합된 색화장토, 무색투명한 유약에 안료를 혼합하는 유중안료, 유약아래 및 위에 사용하는 유하 및 유상 안료 등이 있다. 특히 하계 태토에 발색제를 혼합하여 여러 가지 색의 점토를 겹쳐 만든 경우가 있는데 연리문 자기가 대표적이다. 슬립유약이라 불리는 것은 화장토가 유약의 특성을 겸비하는 것으로 용체가 충분히 함유된 점토를 수비하여 만든 것으로, 이집션페이스트, 테라시질라타, 비트러스 슬립, 알바니슬립, 옹기유약의 재료인 약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채색기법은 유하채색인 유리홍釉裏紅, 3차 저화도 소성기법인 오채五彩, 오채 안료에 산화연을 혼합해 사용하는 분채粉彩, 유하에 청화로 문양의 윤곽선을 그린 후 유상에 채색한 투채鬪彩 등 다양하다.



그림1. 상회전사 기법

## 무병장수와 극락왕생

유수란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늘 평안하며 죽어서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불교회화에도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는 무수히 많은 부처가 있는데, 동방 유리광정토에 머무는 약사불은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부처입니다. 약사불은 과거에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없애기 위한 12가지 서원誓願을 세웠고, 이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사불이 무병장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고, 약사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사정토에서 설법하는 약사불>에서는 약함을 든 약사불이 가르침을 설하고 있고, 주변에 보살, 제자, 사천왕이 약사불의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약사부처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면, 극락왕생은 아미타부처에게 기원합니다.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정토 신앙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미타불은 불상, 불화뿐만 아니라 불감에서도 표현되었습니다.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은 나무로 제작된 작은 불감입니다. 이 작은 불감의 문을 열면 즐거움만 가득한 곳,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펼쳐집니다. 작고 가벼워 개인적인 공간에 봉안되거나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에 두고 극락정토를 염원했던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교회화실에 전시된 불화와 경전을 통해 질병의 고통 없이 장수하고, 죽어서는 즐거움만이 가득한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던 인간의 오랜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 1.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 조선